

토론문: 이돈화의 현상즉실재론 전유, 개념에서 논법으로 - 이노우에의 유물론 반박은 어떻게 '인내천 논증'이 되었는가

이재연(UNIST 인문학부)

개념사 분야에서 저자나 저작 사이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난제다. 특히 현대의 학문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근대 시기, 저자가 참고한 문헌과 출처를 상세히 밝히고 출간하지 않았던 저작의 영향력 관계는 그러하다. 개념사를 폭넓은 층위에서 논의했던 1990년대의 문화론 혹은 문화적 번역에서는,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용이한 방법을 택했다. 번역이 이어준 두 저작의 명백한 관계항을 두고, 번역하는 주체(리디아 리우 Lydia Liu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host language)가 번역 대상 저작의 개념과 문화(guest language)를 어떤 식으로 변용했는지를 논증했다. 예를 들면, 헨리 휘튼(Henry Wheaton, 1785-1848)가 쓴 『국제법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 丁騷良, 1827-1916)이 『만국공법』(1864)이란 이름으로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국가 사이의 법률적 이해를 유교 논리인 ‘도’에 의거해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식이다.¹⁾ 영향 관계가 전제된 두 지식 체계에서 어휘적, 문맥적 차이를 찾고 이를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두 저작 사이의 영향 관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이를 전제할 수 없다면 문제는 어려워진다. 특히 동시출현 어휘가 희소하여 두 저작 사이의 문맥을 잇기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러하다. 허수 선생님은 그간 개념사 분야에서 수량적 분석과 정성적 읽기를 진행하며 학문적 엄정성을 담보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정립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 1855~1944)가 『철학과 종교』(1915)에서 논의한 유물론 반박을 이돈화(1884-1950)가 『인내천-요의』(1924)에서 논증한 방식이 초점이다. 앞서 설명한 문화적 변용에서 이돈화가 이노우에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무엇을 후경화하고 무엇을 전경화했는가하는 내용도 있지만, 묘미는 두 저작을 맞대고 수량적 방법을 통해 이돈화가 밝히지 않은 이노우에 사상의 영향을 추적하고 논증한 방식이다. 이 대목에서 허수는 설록흠츠처럼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갔는데, 저는 왓슨처럼 그의 설명을 듣는 재미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수량적 방법론의 요는, 두 책에서 겹치는 어휘가 많지 않으니, 어휘의 분포와 밀집을 고려하는 것이다. 허수는 연속 다섯 문장을 한 묶음으로 자르고, “두 책의 묶음을 하나도 빼지 않고 짝지어, 쌍마다 두 묶음에 공통으로 나오는 한자어의 가짓수가 둘을 합쳐 나오는 가짓수 가운데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잰다(4쪽). 겹침이 가장 높은 쌍이 0.22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허수는 1/3 이상이 닮아야 한다는 조건을 주어, 유효쌍을 구분하고 이를 100 묶음당 유효쌍이 몇 개나 나오는지 그 비율을 구하여 유사도의 분포를 확인했다(5쪽). 여기에 이돈화의 글에서 보이는 이노우에의 특정 어휘(예를 들면, “現象即實在,” 8쪽), ‘의식’을 분류하는 항목의 이식(<표11>, 17쪽) 등의 발견을 추가하여, 이노우에의 유물론 반박의 방식 순서가 이돈화의 것과 일치함을 보였다. 이 방법은, 이돈화가 “유물론을 비판했다는 것”과 “이노우에에게서 개념과 도식을 받았다는” 기존의 두 연구를 실증적으로

1) Lydia Liu,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China, 1900-1937*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연결하며 이돈화가 이노우에에게서 유물론 비판의 개념과 도식의 방법까지도 받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19쪽). 매우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방법론이 아닐 수 없다.

1. 유물론 반박의 방식에 관해 이노우에-이돈화 사이의 직접적 영향 관계가 있었음과 이를 증명하는 수량적 방식은 수긍한다. 배우고 싶은 방법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초점을 조금 달리하여, 이돈화의 『인내천요의』 전체 구도에서 이노우에의 유물론 반박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노우에가 이돈화가 인내천을 설명하기 위해 끌어들인 여러 사상가 중 한 명이라면, 다른 사상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천요의』라는 저작의 담론적 계보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이를 고려한다면 이를 논증하기 위해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된다. 즉, 현재의 방법론은 일대일로 두 저서를 맞대어 비교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저서가 여러 저작/저자의 영향 관계 속에 위치함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일대다, 다대일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에는 어떤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할까?

2.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유물론 비판의 내용이 이노우에와 이돈화가 같은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8페이지에 허수는 이노우에의 다섯 개의 논점 중 이돈화의 논점 두 개가 두 개는 누락, 한 개는 이노우에의 다른 논점에서 차용했음을 밝혔다. 차용의 부분은 이노우에의 주장 “물질은 결국 우리의 관념이다”과 이돈화의 대항함, “사람의 感情的 作用을 諒解치 못한다 - 戀愛가 그러하다”를 두고 저자는, 이 둘이 직접 대응하지는 않지만 拒力, 引力을 감정이라 규정한 네겔리의 주장을 인용한 이노우에의 논거를 들어 감정을 강조한 논증 방법 역시 이노우에에게서 왔음을 밝혔다 (9쪽). 영향 관계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왜 이돈화는 간단하게 이노우에처럼 “물질은 결국 우리의 관념이다”라고 직설하지 않고 연애나 감정으로 우회하여 비슷한 내용을 예둘러 표현한 것일까? 또 “물질은 결국 우리의 관념이다”라는 명제와 “물질은 결국 우리의 감정이다”라는 명제는 같은 것일까? 유물론 반박에 있어서, 이노우에가 강조하지 않는 이돈화의 주관/객관의 이분법은 얼마나 독창적인 것이었을까?

3.2번 질문은, 이노우에가 사용하는 ‘생명’ 개념과 이돈화의 그것이 같은 개념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끈다. 허수는 이노우에가 언급한 생명의 다섯 가지 특징 중 네 가지가 이돈화의 저서에 이식되었음을 보였다. 논증 방식 역시 유사함을 보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했다. 저자는 이노우에의 活力이 이돈화의 活精으로 바뀌었고, 이 어휘는 “실재, 대우주, 영혼”과 같이 사용되는 특이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10쪽). 예를 들어 이돈화는 “大宇宙의 活精이 사람에게서 表現될 時 吾人は 이를 稱하야 靈魂이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1쪽). 우주 에너지가 인간을 빌어 나타나는 것이 영혼이라는 주장인데, 스즈키 사다미는 이러한 靈, 靈魂과 같은 어휘의 사용은 기타무라 도코쿠(北村透谷, 1868-1894)와 같은 메이지 낭만파 시인에게서 온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특히 기타무라의 「내부생명론」과 같은 비평).²⁾ 이철호는 스즈키의 ‘다이쇼 생명주의’를 받아들여, 일본의 낭만적 생명주의 담론이 1910년대 말 20년대 초에 한국으로 건너왔고, 이광수, 전영택, 오상순 등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한국의 근대적 낭만주의의 기원이 되었다고 말한다.³⁾ 이돈화의 생명론이 당시 이러한 낭만주의의 자장 안에 있었다면, 이노우에와 이돈화는 같은 ‘생명’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유물론을 비판하고 있지만, 다른 개념사적 계보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2)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 「『大正生命主義』とは何か」, 鈴木貞美 編, 『大正生命主義と現代』, 河出書房新社, 1995.

3) 이철호, 『영혼의 계보: 20세기 한국문학사와 생명담론』 (창비, 2013).